

### 3) 축산물

1968년부터 정부는 강력한 축산진흥시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순천지역에서도 1960년대에 비하여 1970년대에는 한우의 사육이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젖소의 사육 또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주암면 행정리 야산에 넓은 초지가 조성되어 육우를 사육하는 수선목장이 시범목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축산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육류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1972년 이후 돼지의 경우, 점차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전업농가는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후반과 1983년에 있었던 불황의 여파로 사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굴곡이 심하였다. 닭의 사육은 경기의 변동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전업화가 쉬운 편이어서 1979년 4월에는 해룡면 상삼리에 순천시(당시 승주군) 제1호 종계장(種鷄場)이 세워지는 등 닭 사육 기업농가가 증가하여 다량의 닭고기와 달걀을 공급하여왔다.